

# 가스안전기기 가스산업 동반자 연구개발 소비자 인식 전환 유도해야

가스사용시설에서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및 제품 불량 등에 의한 이상상태를 감지 또는 검지,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또는 부품' 가스안전기기를 일컫는 말이다.

가스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에너지원이지만 취급 부주의 등 내외변수로 인해 화마로 변모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해 위험을 대비하고 능동적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 일본에서 가스안전기기 보급으로 인해 가스사고가 크게 줄어든 사실에 자극을 받아 가스안전기기 개발, 보급 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퓨즈콕과 마이콤미터(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등 가스안전기기가 국산화됐으며 가스누출차단장치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비롯해 보급측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현재 가스경보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가정용시설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돼있는 시설에는 설치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예산 75억원이 투입되는 'LP가스안전기기(퓨즈콕)보급지원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퓨즈콕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173만 퓨즈콕 미설치 가구에 대해 설치를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60만가구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과 가스안전공사의 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사고는 획기적인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005년 가스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불과 1건이 줄어든 109건으로 집계됐다.

도시가스 사고는 줄었지만 LP가스 사고 증가로 여전히 100건을 웃도는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 역시 재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가스안전기기 보급으로 가스사고가 획기적인 감소를 나타냈던 것에 비해 미흡한 실적이다.

일본 중앙정부기관인 경제산업성에서는 지난 86년 LP 가스안전기기보급 간담회를 발족해 민관공동으로 Fail Safe기구가 부착된 안전기구 보급활동에 나서 가스사고를 크게 감소시켰다.

Fail Safe기구는 소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연소를 비롯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기구를 말한다.

Fail Safe기구는 당시 동경가스를 주축으로 250개 도시 가스회사가 공동개발했는데 'MY-SAFE' 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82년에 2000개를 최초로 설치한 이후 가스사용 시설과 임대계약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설치됐다.

'MY-SAFE'의 보급률은 86년도 0.5%에 불과했으나 2002년 99.6%로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 가스사고는 515건에서 90건으로 82.5%나 감소했다.

여기서 'MY-SAFE'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마이콤파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말한다.



일본 사례를 통해 마이콤파터가 가스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콤파터의 보급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난 98년도 산업자원부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성계전, 대한가스기기, 위지트(금호미터텍)가 국책사업으로 마이콤파터를 개발했으나 대구 아파트 200세대에 설치하는 성과만 거두고 상용화되지 못했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마이콤파터 생산을 포기한 상태로 현재 극동기전에서만 마이콤파터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디지털 홈 시범 사업인 KT컨소시엄에 참여해 수도권, 대구 소재 120세대 아파트와 서울사회복지시설에 10대정도를 설치했으며 기타 연구기관 관련업체에 약 200여대를 제공해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콤파터의 보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먼저 기존 가스계량기를 대체해야하는 번거로움에다가 일반 계량기는 물론 다른 가스안전기기에 비해서도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 등에서 사용자들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퓨즈콧은 6000원~1만원, 가스누출경보기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고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도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지만 마이콤파터는 최소 25만원은 줘야 한다.

또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가스관련 기기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마이콤파터의 보급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도시가스가 마이콤파터를 설치하는 대신 비용을 가스요금에 고스란히 부담시키면 가스사용자의 불만도 커질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

# 가스안전 점검



## 가스사고 획기적인 저감 위해 퓨즈콕 마이콤미터 등 다양한 기기 사용 바람직

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콤미터의 보급을 위해 마이콤미터 설치시 가스누출차단경보장치설치로 갈음하는 한편 가스안전점검 주기도 6개월 1회에서 3년에 1회로 연장토록 제도를 수정했다.

퓨즈콕 보급사업이 종료되면 마이콤미터 보급 사업을 후속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태세다.

최근 가스안전공사는 마이콤미터 보급을 위해 할부, 리스제도 및 매월 가스요금 분납 등 공급규정 개정을 산자부와 허가관청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전국 시도 도시가스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주관 '홈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 중 홈네트워크 관련 기기 및 장비설치 기준에 마이콤미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

제조사인 극동기전도 보급 노력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극동기전은 LG텔레콤과 연계해 가스안전 검침솔루션을 개발하고 지난 7월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모바일 가스안전 검침솔루션을 통해 가스 사용자는 휴대폰을 통해 사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가스사용량도 조회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는 운영서버를 통해 공급시설의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해 관리할 수 있고 검침 정보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 솔루션은 사용자가 마이콤미터를 구입해야하는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대가로 가스안전솔루션이 장착된 휴대폰과 마이콤미터, CDMA컨트롤러 등 제반 장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극동기전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경남에너지와 YESCO 등 일부 도시가스사에서 시범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마이콤미터와 이동통신이 결합한 가스안전기기가 상용화될 시기가 임박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영도 배관연구팀장이 발표한 '가정용 가스안전기기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스안전기기의 특성이 다르고 상호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소에 적합한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때 가스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퓨즈콕 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마이콤미터, 경보기 등 첨단안전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